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노 성 훈*

국 | 문 | 요 | 약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내국인들의 태도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범죄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위협이론에 근거하여 내국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발생 위험이 외국인과의 물리적 거리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상관관계는 일차적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집단적 위협감에 의해 조건화될 것으로 보았다. 서울시 소재 30개 행정동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반면 단순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인식은 범죄발생의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촉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외국인근접성인 경우와 외국인증가인식인 경우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관련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외국인 범죄, 범죄 두려움, 집단위협, 지역사회통제,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2585)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I. 서론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인종적·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지역 공동체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의 물결과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12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¹⁾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길에서 어찌다가 발견한 외국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직장, 거리, 식료품점, 식당 등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지거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 점차 혼합되어 가면서 한국 사회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미래의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동질적 사회에서 이질적 사회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욱이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감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의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국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생김새,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 속에 침투해 온다고 의식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Lofland, 1973).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M. 블레록(Herbert M. Blalock, 1967)의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 의하면 다수자인 내국인들이 소수자인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어 방어기제가 발동한다고 한다. 다수자들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경계짓기’를 통해 소수자들과 구별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더 나아가 내국

1) 체류외국인 126만 명은 장기체류자 약 100만 명과 단기체류자 26만 명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불법 체류외국인이 168,000명 가량 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인들은 스스로 소수자들에 의해 위협받는 다수라고 느끼게 되면 ‘약탈적 정체성’(predatory identities)을 띠게 될 우려마저 있다(Appadurai, 2006).²⁾ 하지만, 단순히 동일한 지역사회에 거주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동일시한다면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우려를 범할 수 있다. 내국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근린(neighborhood)에 존재한다는 ‘물리적 거리감’ 외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촉이론’(contact theory)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우호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도를 높여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Williams, 1947). 이러한 논리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결국 ‘낯섦’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지역 내에도 외국인과의 접촉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선화(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상인이나 임대업자들과 단순히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내국인들 간에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낯선 소수집단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 소수집단의 유입이 초래한 (또는 초래한 것으로 믿는) 무질서의 증가, 주민들 간의 유대감 약화와 같은 부정적 결과들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이방인의 유입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 이방인과 토착인 사이의 갈등관계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공동체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될 때 범죄나 무질서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다(Kornhauser, 1978; Shaw & McKay, 1942).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무질서 증가, 지역유대 약화, 그리고 집합적 효능성의(collective efficacy) 부재와 같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들이 주민들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수임이 밝혀졌다(Lewis & Maxfield, 1980; Roh &

2) 약탈적 정체성란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던 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인해 위협받는다라고 느낄 때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띠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흔히 민족주의나 순혈주의에 의해 강화되며 다수자들을 자신들을 국가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려 하고 소수자들의 제거를 통해 국가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Oliver, 2005; Rountree & Land, 1996; Sampson et al,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국인들의 입장에서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전반적인 삶의 질적 저하, 무질서와 혼란 증가, 지역문제 해결 역량 약화 등 지역사회 통제메커니즘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두려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근로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구은영 2006; 김수재 2006; 설동훈 2002). 범죄와 관련된 연구도 외국인노동자 개인이 겪은 범죄피해 현황을 알리는 선에 그치고 있다(설동훈, 2004).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집단 간의 갈등과 접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외국인의 유입과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내국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도 실시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이번 연구는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의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는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머지않아 도래할 본격적인 다문화 한국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외국인의 유입 속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만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 관련 연구

미국 사회학자 허버트 블레록(Blalock, 1967)의 집단위협이론은 원래 사회의 다수집단이 새로이 유입된 소수집단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할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인종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미국에서는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위협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흑인 인구의 규모와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Fox, 2004; Giles & Buckner, 1993; Taylor, 1998). 하지만, 백인-흑인 관계 이외의 다른 인종적·민족적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집단위협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onacich, 1972; Lieberson, 1980; Olzak, 1992).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위협’의 개념을 기존의 다수 집단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정치적·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수집단의 위협으로 해석하였다. 소수집단의 수적 증가와 이로 인한 적대감과 편견의 팽배는 법 집행이나 형벌 등과 같은 사회통제수단을 보다 강력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엄벌주의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미국 연구들은 근린의 흑인거주자 규모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통제 메커니즘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흑인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경찰력의 규모가 크거나(Jacobs, 1979), 체포율이 높거나(Harer & Steffensmeier, 1992), 경찰의 물리력사용 빈도가 높거나(Chamlin, 1989), 교정시설에 구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Myers, 1990). 또한, 최근 흑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일수록 범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King & Weelock, 2007).

소수인종·민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강화는 소수집단의 존재로 인해 야기되는 내국인들의 감정적 또는 인지적 반응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주지역내에 이질적인 집단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내국인들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지역사회내의 사회통제 수단(예를 들어 경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여론의 형성, 나아가 경찰력의 보강이나 강력한 법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집단위협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소수민족과의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처벌적 대응이 강화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객관적인 소수인종·민족 인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수인종·민족의 규모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Chiricos et al., 2001; Eitle & Taylor,

2008; Liska et al., 1982; Skogan, 1995; Taylor & Covington, 1993).

집단위협이론이 이질적 집단 간의 근접성이 적대감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는 반면 접촉이론은 집단들이 접촉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Williams, 1947). 그런데 접촉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접촉의 질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Allport, 1954). 접촉이 자발적이면서 대등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경쟁적이지 아닌 협동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접촉이 지원될 때 편견의 해소나 상호이해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은 각기 다른 인종·민족에 속한 사람들 간에 형성된 개인적 친분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하였다(Dixon & Rosenbaum, 2004; McLaren, 2003; Yancey, 2003). 또한, 접촉의 효과는 단순히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예를 들어, 다인종 교회의 참석이나 타인종간 결혼)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merson et al., 2002).

타 인종·민족 간의 근접성의 영향에 관하여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두 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때 인종·민족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집단위협이론의 주장처럼 소수인종·민족의 존재는 적대감과 편견을 유발하지만 다른 인종·민족 간의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이 감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딕슨(Dixon, 2006)의 연구에서 흑인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백인들일수록 흑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흑인은 우둔하고, 게으르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백인과 흑인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 편견의 수준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집단 간의 단순한 근접성이 부정적 편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 간의 친밀한 접촉에 의해 조건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소수 인종·민족의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집단위협이론에 의하면 소수 인종·민족의 존재는 다수집단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집단 간의 접촉에 의해서 조절된다. 즉,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각 구성원 사이에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편견이 감소한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모형

테일러와 해일(Taylor & Hale, 1986)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 가지 모델로 설명한다. 첫째, ‘간접피해자화 모형’(indirect victimization model)은 사회경제적 특성상 범죄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범죄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늙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McGarrell et al., 1997; Stafford & Galle, 1984). 또한,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를 더 두려워하며(Carcach, et al., 1995; Stafford & Galle, 1984), 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Carcach, et al., 1995; Taylor & Hale, 1986). 과거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Skogan & Maxfield, 1981),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경험에 의한 범죄두려움의 증가는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Chiricos et al., 1997),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ountree, 1998).

둘째, ‘지각된 무질서 모형’(perceived disorder model)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목격되는 물리적 무질서 (예를 들어, 무단투기 쓰레기, 버려진 빈집 등)와 사회적 무질서 (예를 들어, 불량청소년, 술 취한 행인 등)는 지역사회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호로 작용된다(Skogan, 1990). ‘깨어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주장처럼 무질서의 증가는 “지역문제에 아무도 상관 안 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무질서 행위를 더욱 부추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무질서 증가가 범죄발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 두려움을 갖게 된다(Wilson & Kelling, 1982).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무질서 모형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일관되게 검증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LaGrange, et al., 1992; Lewis & Maxfield, 1980; Roh & Oliver, 2005; Schafer et al., 2006).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우려모형’(community concern model)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제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지각된 무질서모형’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역사회 우려모형’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 간에 친화감, 교류, 인맥이 형성되어 지역유대 정도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또한, 지역사회가 범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좌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와 능력, 즉 집합적 효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한다. 지역사회통합모형도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조사되었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의 강력한 유대관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Lewis & Salem, 1986; Markowitz, et al., 2001; Rountree & Land, 1996),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Austin, et al., 1994; Ferguson & Mindel, 2007; Zhao et al., 2002).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지역의 유대라는 변인의 측정방법 차이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Bursik & Grasmick, 1992), 지역의 강력한 유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대 도심지역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ampson et al., 1999).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유대와 더불어 집합적 효능성을 새로운 지역사회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여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집합적 효능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Gibson et al., 2002; Ferguson & Mindel, 2007),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집합적 효능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Xu et al., 2005).

국내에서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출판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노성호 · 김지선, 1998; 조은경, 2003; 최수형, 2009; Roh et al., 2013).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무질서요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이 지역

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을 유발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지는 않았다(황의갑, 2009). 지역사회통합모형의 경우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사회유대감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황의갑, 200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는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현, 2005).

I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그 동안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은 미국처럼 다인종·다민족 사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반면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다문화 분야의 연구들 중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거리감, 서로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 등을 조사한 연구는 있지만(김은미 외, 2009), 이러한 요인들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 없다. 한국사회 속에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범죄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범죄의 양상이 점차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범죄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을 위협하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나아가 타인종이나 타민족 전체에 대한 혐오주의로 진행될 수도 있다.³⁾ 실제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관련 사법기관들은 외국인밀집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3) ‘외국인 혐오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뉴시스(2011.1.1)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인식하는 두려움을 집단위협, 사회적 근접성, 그리고 지역사회통제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추구하였다.

- ① 지역사회 내에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와 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등을 기술한다.
- ② 외국인과의 근접성,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한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대입하여 검증한다.
- ③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효과적 지역사회 치안대책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집단위협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물리적 근접성이 한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을 증가시킨다는 주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내국인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 정도가 물리적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집단적 위협 인식의 조절효과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종속변수로는 일반적 범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범죄두려움(fear of crime)과 구체적 범죄유형별로 발생위험성에 바탕을 둔 범죄위험인식(perceived risk of crime)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과 연구모형(그림1)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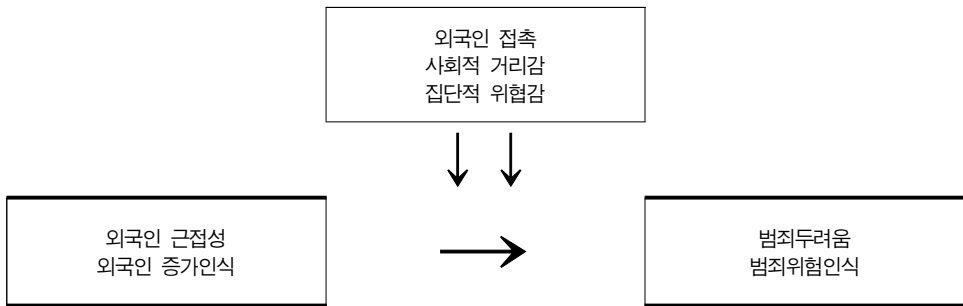
4) ‘검·경 외국인범죄 전담 합수부 출범’, 머니투데이(2009.10.27)

(1) 연구가설

가설 1.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는 인식 (또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두려움 (또는 범죄위험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고 인식 (또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범죄두려움(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또는 사회적 거리감, 집단적 위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전체 423개 행정동 중에서 외국인비율과 외

국민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30개 행정동이다. 연구의 목적상 외국인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⁵⁾ 이를 위해서 먼저 2010년 통계청 외국인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행정동을 외국인 고밀집 지역과 외국인 저밀집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행정동 전체인구 중 등록외국인의 비율이 10% 이상이고 등록외국인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 고밀집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외국인 저밀집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외국인 고밀집 지역 26개 동 중 18개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나머지 외국인 저밀집 지역 397개 동에서 12개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30개 동에 대해 비확률표집방법의 일종인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활용하여 각 동별로 30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가정하고 각 성별과 5개의 연령대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고 각 항목별로 3명씩 할당하여 동별 표본숫자가 30개가 되도록 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74	50.9
	여자	361	49.1
연령	19-29세	176	23.9
	30-39세	154	21.0
	40-49세	144	19.6
	50-59세	139	18.9
	60세 이상	122	16.6
학력	초등학교 이하	26	3.6
	중학교	47	6.4
	고등학교	248	33.7
	대학교	377	51.3
	대학원 이상	37	5.0

5) 불비례표본추출로 인해 표본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편포되어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연구의 목적상 주거지역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들을 가급적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구 분		빈도	퍼센트
혼인관계	미혼	268	36.5
	기혼	446	60.7
	이혼/별거/사별	21	2.9
소득수준	소득없음	37	5.0
	100만원 미만	52	7.1
	100 ~ 200만원 미만	132	18.0
	200 ~ 300만원 미만	163	22.2
	300 ~ 400만원 미만	131	17.8
	400 ~ 500만원 미만	81	11.0
	500 ~ 600만원 미만	51	6.9
	600 ~ 700만원 미만	21	2.9
	700만원 이상	67	9.1

설문조사는 경찰대학 3, 4학년 재학생 중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20명의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⁶⁾ 2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미리 배정받은 조사지역에 가서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미리 작성된 할당표에 맞추어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팀은 해당 조사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 지하철 역사, 주민자치센터, 커피숍 등에서 일차적으로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찾았다.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거주지역이 해당 조사지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방법은 조사에 동의한 응답자에게 조사원이 미리 준비한 질문지에 의거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을 질문지에 기록하는 방식을 따랐다. 최종적으로 807개의 응답된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결측치를 갖는 52개 케이스와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분석으로 찾은 25개의 극단치 케이스를 제외하여 총 735개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각 동별 외국인비율과 표본 크기는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6) 모든 조사원들은 ‘조사방법론’ 강의를 이수한 자들 중에서 과제물로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다. 조사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면접조사 연습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범죄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이다. 범죄두려움은 ‘밤에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등 세 가지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각 상황별로 ‘전혀 두렵지 않다’부터 ‘매우 두렵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범죄위험인식은 절도, 강도,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5가지 범죄에 대하여 평소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정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걱정한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요인적 재량이 0.70 이상이고 크론바흐 알파값이 0.86으로 측정상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나. 독립변수

외국인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외국인근접성’과 ‘외국인증가인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외국인근접성은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외국인증가인식은 ‘최근 몇 년 동안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다고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의 답변항목 중 ‘증가했다’를 ‘1’로, ‘별로 변하지 않았다’와 ‘감소했다’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다.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나타내는 ‘외국인접촉’, ‘사회적거리감’, 그리고 ‘집단위협감’의 세 변수를 포함한다. 먼저 외국인접촉은 응답자가 각각 거주지역 내에서, 직장이나 사업관계로, 또는 가족이나 친척관계로 알고 있는 외국인 중에 친하다고 느끼는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친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값 1)와 그렇지 않는 경우(값 0)의 이항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거리감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변형하여 측정하였다(Bogardus, 1925). 응답자에게 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매우 찬성한다’(1점)부터 ‘매우 반대한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거리감의 계산은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점수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이때 각 항목별로 사회적거리감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계산하였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 ‘외국인이 내가 사는 도시에 사는 것’,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외국인 자녀와 내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외국인이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 ‘나의 가족구성원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외국인과 내가 결혼하는 것’의 순서로 7점부터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⁷⁾ 요인적재량이 0.65 이상이고 신뢰계수가 0.86으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하겠다. 집단위협감은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답변을 ‘1’로, 나머지 답변은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표 2〉 합성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신뢰계수
범죄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84	.86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갈 때	.92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89	
범죄위험인식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82	.86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87	
	누군가 나를 때려 다치게 할까 봐	.80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침입할까 봐	.77	
	누군가 내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75	
사회적거리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	.84	.86
	외국인이 내가 사는 도시에 사는 것	.85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85	

7)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7점) 항목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5점)고 답변하면 사회적거리감은 35점 (=7×5)이 되고 ‘외국인과 내가 결혼하는 것’(1점) 항목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1점)고 답변하면 사회적거리감은 1점(=1×1)이 된다.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신뢰계수
사회적거리감	외국인 자녀와 내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77	
	외국인이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	.76	
	나의 가족구성원(자녀)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73	
	외국인과 내가 결혼하는 것	.65	
지역사회무질서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다	.80	.84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	.76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76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75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67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73	
집합적효능성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81	.74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줄 것이다	.82	
	이웃들까지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62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77	

(4)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별은 더미변수(여자=1)를 사용하였고 연령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등 5개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의 변수 값을 1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0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혼인관계는 ‘미혼’, ‘이혼’, ‘별거’, ‘사별’의 변수 값을 1로 하고 ‘기혼’을 0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 없음’으로부터 최고 ‘700만 원 이상’까지 9개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였는데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재물손괴,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유무로 측정하였다.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변수 값 1을 부여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경우 변수 값 0을 부

여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무질서’는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다’ 등 응답자 거주지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적합한 수준이었다.(요인적재량: > 0.67; 신뢰계수: 0.84). ‘집합적효능성’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지에 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등 4가지 질문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요인적재량: > 0.62; 신뢰계수: 0.74). ‘지역사회생활수준’은 ‘귀하가 살고 계신 동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서울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항목은 ‘하위 25% 미만’, ‘50% - 하위 25% 이하’, ‘상위 25% 미만 - 50% 이상’, ‘상위 25% 이상’이며 순서대로 1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였다.

〈표 3〉 기술통계분석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범죄두려움	3,00	15,00	8,42	3,39
범죄위험인식	5,00	25,00	13,16	4,83
독립변수				
외국인근접성	.00	90,00	15,80	19,70
외국인증가인식 (1=증가)	.00	1,00	.66	.47
통제변수				
성별(1=여자)	.00	1,00	.49	.50
연령	1,00	5,00	2,83	1,41
학력(1=대졸이상)	.00	1,00	.56	.50
혼인관계(1=미혼/이혼/별거/사별)	.00	1,00	.39	.49
소득수준	1,00	9,00	4,70	2,10
범죄피해경험 (1=있음)	.00	1,00	.01	.10
지역사회무질서	6,00	30,00	18,23	5,18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집합적효능성	4.00	20.00	14.31	3.04
지역사회생활수준	1.00	4.00	2.71	.83
조절변수				
외국인접촉(1=접촉)	.00	1.00	.24	.43
사회적거리감	4.00	20.00	10.51	2.89
집단적위협감(1=위협)	0.00	1.00	.33	.47

V. 분석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버전 19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분석모형에 독립변수(외국인근접성, 외국인증가인식), 종속변수(범죄두려움, 범죄위험인식), 간접피해모형 관련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 변수, 범죄피해경험)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통제 관련 통제변수들을(지역사회무질서, 집합적효능성, 지역사회생활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외국인접촉, 사회적거리감, 집단적위협감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회귀식에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²)의 증가량이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에 따라 조절효과 유무를 판단하였다.

〈표 4〉외국인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범죄두려움				범죄위험인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외국인근접성	.042 (.047)	-.001 (.049)	-.018 (.049)	-.016 (.049)	.140** (.077)	.073* (.081)	.042 (.080)	.042 (.080)
성별	.585** (.203)	.582** (.205)	.582** (.204)	.583** (.203)	.262** (.336)	.267** (.336)	.276** (.330)	.278** (.331)
연령	-.057 (.105)	-.030 (.105)	-.046 (.105)	-.051 (.105)	-.020 (.174)	.012 (.172)	-.024 (.170)	-.022 (.171)
학력	-.050 (.226)	-.036 (.226)	-.025 (.224)	-.029 (.224)	-.007 (.374)	.010 (.370)	.028 (.363)	.027 (.364)
혼인관계	-.065 (.288)	-.065 (.285)	-.052 (.283)	-.053 (.282)	-.179** (.476)	-.176** (.468)	-.160** (.459)	-.160** (.459)
소득수준	-.033 (.051)	-.022 (.052)	-.016 (.052)	-.022 (.052)	-.044 (.085)	-.044 (.086)	-.048 (.085)	-.051 (.085)
범죄 피해경험	-.018 (1.038)	-.022 (1.032)	-.012 (1.027)	-.017 (1.027)	.092** (1.718)	.079* (1.692)	.087** (1.664)	.086* (1.671)
지역사회 무질서		.113** (.023)	.090* (.023)	.092** (.023)		.223** (.038)	.187** (.037)	.187** (.038)
집합적 효능성		-.072* (.035)	-.065* (.035)	-.065* (.035)		-.061* (.057)	-.064 (.056)	-.065 (.056)
지역사회 생활수준		.028 (.142)	.026 (.140)	.023 (.140)		-.052 (.232)	-.049 (.228)	-.049 (.228)
외국인접촉			.019 (.238)	.020 (.238)			.098** (.386)	.099** (.386)
사회적 거리감			.104** (.037)	.104** (.037)			.075* (.060)	.073* (.060)
집단적 위협감			.063 (.232)	.071* (.233)			.169** (.376)	.168** (.378)
외국인 근접성 ×외국인접촉				-.020 (.104)				-.025 (.168)
외국인근접성 ×사회적거리감				-.004 (.014)				.018 (.023)
외국인근접성 ×집단적위협감				-.077** (.468)				-.005 (.762)
R2	.360	.378	.394	.400	.138	.177	.217	.219
△R2		.018**	.016**	.006		.039**	.041**	.001

주 : 외국인근접성은 정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된 변환한 값임
 상호작용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평균중심화(centering)하여 사용하였음
 **는 1%, *는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4>는 외국인근접성이 범죄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외국인근접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모형2에서 지역사회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양(+)의 영향을, 집합적효능성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생활수준은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3에서 사회적거리감은 범죄두려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접촉과 집단적위협감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1.8% 더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3은 모형2에 비해 설명력이 1.6% 증가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분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가 범죄위험인식인 경우 외국인근접성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응답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범죄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 혼인관계, 범죄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그리고 자신이나 가족이 범죄피해경험이 있을수록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모형2에서는 종속변수가 범죄두려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무질서가 범죄위험인식에 양(+)의 영향 미쳤으며 집합적효능성은 음(-)의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설명력은 3.9%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3에서 외국인접촉, 사회적거리감, 그리고 집단적위협감 모두 범죄위험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접촉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외국인과 친밀한 접촉을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높은 수준의 범죄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 변수의 투입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4.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4에서는 앞의 모형에서 범죄위험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각각의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인 외국인근접성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설명력의 증가는 0.1%에 그쳤으며 유의확률 F변화량이 .05보다 컸다. 따라서 외국인접촉, 집단적위협감, 사회적거리감이 외국인근접성과 범죄위험인식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독립변수가 외국인증가인식인 경우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독립변수가 외국인근접성일 때와 달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모형4에서 회귀식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 증가분이 0.5%에 그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속변수가 범죄위험인식인 경우에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분이 0.1%에 불과하여서 역시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외국인증가인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범죄두려움				범죄위험인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외국인증가인식	.086** (.214)	.067* (.214)	.057 (.214)	.049 (.215)	.131** (.355)	.103** (.352)	.080* (.346)	.081* (.085)
성별	.594** (.202)	.585** (.203)	.583** (.202)	.583** (.202)	.282** (.336)	.281** (.334)	.285** (.327)	.283** (.328)
연령	-.064 (.104)	-.031 (.104)	-.043 (.104)	-.045 (.104)	-.046 (.172)	.000 (.171)	-.030 (.168)	-.032 (.169)
학력	-.054 (.224)	-.038 (.225)	-.027 (.224)	-.029 (.223)	-.021 (.373)	.004 (.369)	.023 (.362)	.024 (.363)
혼인관계	-.057 (.287)	-.058 (.285)	-.045 (.283)	-.047 (.283)	-.173** (.478)	-.167** (.468)	-.153** (.459)	-.154** (.460)
소득수준	-.040 (.051)	-.026 (.052)	-.018 (.052)	-.021 (.052)	-.066 (.084)	-.056 (.085)	-.056 (.084)	-.054 (.085)
범죄피해경험	-.022 (1.035)	-.025 (1.029)	-.014 (1.026)	-.017 (1.027)	.086* (1.721)	.073** (1.687)	.083* (1.661)	.084* (1.668)
지역사회무질서		.105** (.022)	.079* (.022)	.080* (.022)		.235** (.036)	.193** (.036)	.191** (.036)
집합적효능성		-.072* (.035)	-.065* (.035)	-.066* (.035)		-.059 (.057)	-.063 (.056)	-.064 (.056)
지역사회생활수준		.022 (.141)	.020 (.140)	.018 (.140)		-.058 (.232)	-.054 (.227)	-.053 (.228)

	범죄두려움				범죄위험인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외국인접촉			.015 (.237)	.016 (.237)			.097** (.384)	.096** (.385)
사회적거리감			.101** (.037)	.100** (.037)			.076* (.060)	.077* (.056)
집단적위협감			.056 (.232)	.064* (.233)			.165** (.375)	.164 (.378)
외국인증가인식 × 외국인접촉				-.002 (.501)				.030 (.814)
외국인증가인식 × 사회적거리감				.023 (.079)				.004 (.129)
외국인증가인식 × 집단적위협감				-.077* (.484)				.007 (.787)
R2	.366	.382	.396	.402	.136	.182	.222	.223
△R2		.017**	.014**	.005		.046**	.040**	.001

주: 외국인근접성은 정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곱근 변환한 값임

상호작용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에 평균중심화(centering)하여 사용하였음

**는 1%, *는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에 반해 단순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인식은 범죄발생의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수준의 외국인 비율보다는 지속적인 외국인의 증가 추세가 내국인들에게 더욱 위협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촉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외국인근접성인 경우와 외국인증가인식인 경우 모두 발견되지 않아서 가설2는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각 조절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었다.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집단위협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의외의 결과는 외국인과 친밀한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의 범죄발생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이 범죄발생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범죄율 수준과 같은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약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함과 동시에 외국인들과의 친밀한 접촉 빈도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분석결과가 나타내는 친밀한 접촉과 범죄위험인식 간의 정(+)적 관계는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의한 허위적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자료수집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 범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⁸⁾

범죄두려움의 설명요인들 중 지역사회무질서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처럼 범죄 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적효능성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범죄위험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에는 성별에 있어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범죄를 두려워하고 범죄의 발생위험성도 높게 인식했다. 과거에 자신과 가족에게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범죄위험인식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를 당한 응답자들 중 많은 경우가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나 단순 폭행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접촉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근한 접촉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8) 공식범죄통계를 주요 수집기관인 경찰청과 법무부 모두 동(洞) 단위의 범죄발생통계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설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접촉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외국인과의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외국인밀집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인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 전반의 시각이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인식보다 더 우세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범죄성과 관련한 내국인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먼저 외국인(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전체 집단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판단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개별적 사례를 토대로 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오원춘 사건’과 같이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잔인한 범죄는 전체 외국인의 범죄성향과 관련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집단을 판단하는 ‘개인주의적 오류’(individualistic fallac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국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이웃관계, 직장관계, 그리고 가족관계를 통한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막연히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가 암시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이미지 형성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보다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며 더 나아가 외국인의 근접성과 범죄 위험인식간의 상관관계도 사회전반에 의해 형성되고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한 외국인 몇 명을 알고 있는 내국인이 이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내면화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개인적 수준의 친밀한 접촉만으로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적어도 평균 이상의 범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국인 관련 민간기구들이 주도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친밀한 접촉을 증진시켜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

과가 제시하듯이 이러한 다문화 프로그램만으로 전체 외국인 집단에 덧씌워진 범죄자 이미지를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전체 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성격과 방법 등이 외국인이라는 사회지위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한 외국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반적 범죄를 다루면서 이를 전체 외국인들에 해당하는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집단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장기적 차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동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회계급으로서의 외국인과 범죄자 이미지와의 관련성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하층계급을 차지한다. 한국사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 속에서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계급에 속할 뿐만 아니라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추가적 계급강등을 겪게 된다. 그런데 하층계급을 잠재적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자본주의사회의 하층계급 속에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위협하는 ‘문제인구’들이 ‘사회적 폐품’(social junk)나 ‘사회적 폭발물’(social dynamite)의 형태로 존재한다(Spitzer, 1976). 좀 더 보수적인 범죄학에서도 빈곤과 낮은 학력 같은 낮은 사회계급의 지표들은 범죄와 관련지어 설명되어 왔다. 빈곤은 범죄통제기제가 무력화된 지역의 대표적 특징이었고(Shaw & McKay, 1942), 낮은 계급으로 인해 물질적 성공이 좌절될 때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Merton, 1968).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신분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다른 피부색이나 이질적인 문화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큰

본적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성격 때문인 것이다. 다인종과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의 경우를 봐도 소수인종·민족에 대한 차별문제를 사회경제적 계급이라는 요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Wilson, 1987). 따라서 외국인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외국인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이들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범죄자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특정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고립되어 범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슬럼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직종 다변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지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조사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다만 연구방법상에 있어서 비확률적 표본수집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약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범죄율과 같은 지역사회 수준의 관련 변수들이 누락된 점도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향후 외국인의 유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분석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내포한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차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은 마치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학파가 목격한 대규모 이민자의 도시 유입과 지역사회해체, 이어지는 무질서와 범죄의 급증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이민자들과의 갈등 속에 기존의 지배집단이었던 백인들이 대거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외국인거주지역의 사회해체, 극빈층 흑인밀집지역의 형성, 만성적 우범지대화의 순서를 밟아 오늘날까지도 미국사회의 안전을 위협

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폴레랑스’를 표방하면서 이민자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던 프랑스에서도 2005년 파리 외곽의 외국인집단거주지역인 방리유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했지만 이러한 차별정책의 근간에는 프랑스 내국인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온 외국이민자 간의 해묵은 갈등,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 사회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현상은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 구은영, 2006.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양주시 성생 마을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 김수재, 2006.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전략: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내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사례, 목포대학교
- 김은미·양옥경·이해영,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 김진희, 2009. 서울 시민의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노성호·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 박철현, 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대학생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3: 51-77.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2004. 국내 외국인노동자 차별 해소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이기라·양찰렬 외, 2007. 공존의 기술, 그린비.
-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비교문화, 14: 123-166.
- 조은영,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사회문제, 9: 1-21.
- 탁종연·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 41-70.
- 설동훈,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 황의갑, 2009.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형사정책, 21: 295-323.

나. 국외문헌

- Ackah, Y. (2000). Fear of crime among an immigrant population in the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Black Studies*, 30: 553-573.
- Appadurai, A.(2006).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Duke University Press.
- Austin, D., Woolever, C. & Baba, Y. (1994). Crime and safety-related concerns in a small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 79-97.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lalock, H. (1967). *Towards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Bogardus, E. S. (1925). Social Distance and Its Origin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9: 216-225.
- Bonacich, E.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547-59.
- Brown, C. & Warner, B. (1992). Immigrants, urban politics, and policing in 19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293-305.
- Bursik, R. & Grasmick, H. (1993). *Neighborhood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 Carcach, C., Frampton, P., Thomas, K. & Cranich, M. (1995). Explaining fear of crime in Queensland,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 271-287.
- Chambliss, W., & Seidman, R. (1982). *Law, order, and power*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Chamlin, M. (1989). Conflict theory and police killings. *Deviant Behavior*, 10: 353-368.
- Chiricos, T., Hogan, M. & Gertz, M. (1997). Racial composition of neighborhood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35: 107-131.
- Chiricos, T., McEntire, R. & Gertz, M. (2001). Perceived racial and ethnic

- composition of neighborhood and perceived risk of crime. *Social Problems*, 48: 322-340.
- Ferguson, K. & Mindel, C.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 322-349.
- Fox, C. (2004). The changing color of welfare? How whites' attitudes toward Latinos influence support for welf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 580-625.
- Gibson, C., Zhao, J., Lovrich, N., & Gaffney, M.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 537-564.
- Giles, M. & Buckner, M. (1993). David Duke and black threat: An old hypothesis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s*, 55: 702-13.
- Jackson, P. (1989). *Minority group threat, crime, and policing*. New York: Praeger.
- LaGrange, R., Ferraro, K. & Supancic, M.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 311-334.
- Lee, M. & Ulmer, J. (2000).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s in Chicago communities. *Criminology*, 38: 1173-1206.
- Lewis, D. & Maxfield, M. (1980). Fear in the neighborhoods: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7: 160-189.
- Lewis, D. & Salem, G.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Liebertson, S. (1980). *A piece of the pie: Blacks and white immigrants since 188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ska, A. Lawrence, J. & Sanchirico, A. (1982). Fear of crimes as social fact. *Social Forces*, 60: 760-770.
- Lofland, L. H. (1973). *A world of strangers: Order and action in urban public place*. Illinois: Waveland Press.

- MacGarrell, E., Giacomazzi, A., & Thurman, Q.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 479-500.
- Markowitz, F., Bellair, P., Liska, A. &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 293-320.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yers, M. (1990). Black threat and incarceration in postbellum Georgia. *Social Forces*, 69: 373-393.
- Olzak, S. (1992). *The dynamics of ethnic competition and conflict*. Stan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 C. (1986). Exploring relations among forms of social control: The lynching and execution of blacks in North Carolina, 1889-1918. *Law and Society Review*, 21: 361-374.
- Robinson, J.P., Shaver, P.R., & Wrightsman, L.S. (1991). Criteria for Scale Selection and Evaluation. In Robinson, J.P., Shaver, P.R., & Wrightsman, L.S.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Academic Press. San Diego, CA.
- Roh, S., Kim, E., & Kwak, D., (2013). Community policing and fear of crime in Seoul: A test of competing model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6: 199-222.
- Roh, S., & Oliver, W. (2005).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upon fear of crime: Understanding the causal linkag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8: 670-683.
- Rountree, P.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341-372.
- Rountree, P. & Land, K. (1996). Perceived risk versus fear of crime: Empirical evidence of conceptually distinct reactions in survey data. *Social Forces*, 74: 1353-1376.

- Sampson, R., Morenoff, J.,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chafer, J., Huebner, B., & Bynum, T. (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85-301.
- Skogan, W. &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Sage, Beverly Hills, CA.
-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ogan, W. (1995). Crime and the racial fears of white American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Social Science*, 539: 59-71.
- Spitzer, S. (1976). Toward a Marzian theory of deviance. *Social Problems*, 22: 638-651.
- Stafford, M. & Galle, O. (1984). Victimization rates, exposure to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2: 173-185.
- Taylor, M. (1998). How white attitudes vary with the racial composition of local populations: Numbers cou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12-35.
- Taylor, R. & Covington, J. (1993). Community structural change and fear of crime. *Social Problems*, 40: 374-395.
- Taylor, R.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Xu, Y., Fiedler, M., & Flaming, K. (2005). Dis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The broken windows thesis, collective efficacy, and citizens'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2: 147-186.
- Zhao, J., Gibson, G., Lovrich, N. & Gaffney, M. (2002). Participation in community crime prevention: Are volunteers more or less fearful of crime than other citizens?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5: 41-61.

부록: 조사지역별 케이스 수와 외국인 비율

행정동	케이스 (개)	외국인비율 (%)	행정동	케이스 (개)	외국인비율 (%)
강남구 삼성2동	30	.50	동작구 신대방1동	28	10.33
강남구 신사동	30	1.75	마포구 대흥동	26	10.82
강동구 천호3동	29	1.73	마포구 연남동	29	5.59
강북구 미아동	30	4.08	서대문구 신촌동	21	16.41
관악구 신림동	27	21.87	서초구 양재1동	28	1.26
광진구 지양4동	27	12.14	성동구 사근동	24	10.41
광진구 화양동	31	12.67	송파구 풍납2동	29	.49
구로구 가리봉동	26	34.75	양천구 신월5동	24	.83
구로구 구로2동	26	18.87	영등포구 대림2동	30	31.63
구로구 구로4동	27	13.83	영등포구 도림동	31	15.20
구로구 구로5동	25	10.51	은평구 응암2동	30	.51
금천구 가산동	28	19.53	종로구 창신2동	25	15.03
금천구 독산1동	18	11.92	종구 신당1동	28	16.43
도봉구 방학3동	24	.20	중랑구 망우3동	29	.79
동대문구 회기동	18	12.62	중랑구 중화1동	29	1.58

Increased Foreigners and Fear of Crime: Focusing on Group Threat Theory

Sunghoon Roh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remark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Based on group threat theory, the current study hypothesized that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s influenced by perceived distance from immigrants. The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distance from immigrants was predicted to be contingent upon Korean-immigrant intimate contacts, perceived social distance, and perceived group threat.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30 'Dongs' in Seoul,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in the neighborhoo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ived risk of crime at the cognitive level, but not to fear of crime at the emotional level.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that immigrants were on the increase in the neighborho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ear of crime as well as the perceived risk of crime. However,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is study. Finally, implications for immigrant policy was discussed.

❖ Key words : Immigrants, fear of crime, group threat, social distance

투고일 : 7월17일 / 심사(수정)일 : 9월 25일 / 게재확정일 : 9월 25일
